

# 세이난 전쟁의 흔적

西南戦争の痕跡

Bullet holes made at the Battle of Shiroyama (the final battle of the Satsuma Rebellion)

西南战争的遗迹

西南戰爭的遺跡

누문부 주변의 돌담에서는 무수한 움푹 파인 곳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구멍들을 잘 관찰하면 총탄이나 포탄 파편이 박혀있는 것이 있습니다. 주변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총탄과 포탄 등으로 볼 때 이들 대부분은 메이지 10(1877)년 세이난 전쟁 때의 흔적으로 추정됩니다.

구마모토 · 미야자키의 전쟁에서 패한 사이고 군은 메이지 10년 9월 고향 가고시마로 돌아와 성산을 중심으로 포진하여 최후의 결전에 임합니다. 이에 대해 정부군은 약 5만 명의 군대로 포위하고 사이고 군에게 무수한 총 · 포탄을 퍼부었습니다.

누문부 주변의 돌담에 남아있는 이 탄흔들은 여러 곳으로부터 충격이나 포격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어 이때 공격의 처절함을 오늘에 전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가고시마 (쓰루마루) 성의 마구간 자리에 세워진 사학교 주변 (현재 가고시마의료센터)의 돌담과 돌벽 (여기서 북쪽으로 약 100m: 오른쪽 아래 안내도 참조)에도 탄흔이 남아 있으며 이들은 일본 마지막 내전인 세이난 전쟁의 역사를 전해 주는 귀중한 흔적입니다.



▲ 돌담에 남아있는 총포탄 자국과 총탄 파편



▲ 사학교 주변 안내도